

## 交 友 篇

子曰、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與不善人居 如入飽魚之肆 久而不聞其臭 亦與之化矣 丹之所藏者 赤 漆之所藏者 黑 是以 君子 必慎其所與處者焉。

⇒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로운 지초(芝草)와 난초(蘭草)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그 향기의 냄새를 맡을 수 없으리만큼 동화될 것이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그 나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리만큼 동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주사(朱砂)를 지니고 있는 자는 붉어지고, 옷(漆)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있을 자를 삼가해야 한다.

⇒ 孔子が言うのに善良な人と一緒にいればまるで香ばしい芝草と蘭草がある部屋に入ったことのように長ければその香りのにおいを嗅ぐことが出来ないほど同和されるはずで、悪い人と一緒にいればまるで漬けた魚屋に入ったことのように長ければその悪いにおいを嗅ぐことが出来ないほど同和されてしまってしまうでしょう。だから朱砂を持っている者は赤くなって、漆を持っている者は黒くなるようになったから君子は必ず彼と一緒にいる者を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

家語云、與好學人同行 如霧中行 雖不濕衣 時時有潤 與無識人同行 如廁中坐 雖不汚衣 時時聞臭。

⇒ 《가어》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옷은 젖지 않고 간혹 물기가 배어들 뿐이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면 마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옷은 더럽혀지지 않아도 종종 나쁜 냄새가 난다.

⇒ 《家語》に言うのに学問が好きな人と一緒に行くとまるで霧の中を歩くことのように服は濡れないでたまに水気が沈みこむだけで、無識な人と一緒に行けばまるでトイレに座っているようで服は汚されなくてもたびたび悪いにおいがする。

子曰、晏平仲 善與人交。久而敬之。

⇒ 공자가 말하기를, 안평중(晏平中)은 남과의 교제를 훌륭하게 하였다. 일단 사귀면 오래도록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 孔子が言うのに晏平中は男との付き合いを立派であった。一応付き合えば長い間相手を敬った。

相識 滿天下 知心能幾人。

⇒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 お互いに顔見知りには世の中に一杯だが心を知り合いは果して何人いるのか?

酒食兄弟 千個有 急難之朋 一個無。

⇒술과 음식을 함께 먹을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매우 위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

⇒お酒と食べ物を一緒に食べる人は千人もいるが、非常に危急で難しい時に手伝ってくれる友達は一人もない。

不結子花 休要種 無義之朋 不可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実を実らない花は植えずに義理のない友達は付き合わないこと。

君子之交 淡如水 小人之交 甘若醴。

⇒군자의 교제는 물처럼 담박하고, 소인의 교제는 단술처럼 달콤하다.

⇒君子の付き合いは水のように平淡で、小人の付き合いは甘酒のように甘ったるい。

路遙知馬力 日久見人心。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인심을 알 수 있다.

⇒道が遠いと馬の力が分かるし、時間が長く経つと人心が分かる。